

# A형간염 반년도 안돼 '7166명'

올해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하면서 반년도 안 돼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7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과거에 비해 깨끗한 환경에서 병치레 없이 자라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30~40대 성인들이 쉽게 걸리는 것으로 보고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등을 당부했다.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4일 기준 국가감염병감시체계에 보고된 전국 A형간염 환자 수는 71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03명보다 5.11배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발생률)도 13.83명으로 전년 동기(2.71명)보다 11.12명이나 늘었다.

환자 수와 발생률 모두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한 해 5521명이 A형 간염 확진 판정을 받았던 2011년 기록은 이미 지난해 6239명이 신고되면서 5개월 만에 넘어섰다. 2013년 867명까지 감소했던 환자 수는 2016년 4679명, 2017년 4419명까지 늘어난 바 있지만 올해보다는 모두 적은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환자 발생률도 2011년 10.91명 이후 10명대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령별로 30대(30~39세)가 2600명(37.1%), 40대(40~49세)가 2600명(36.3%) 순으로 많이 신고된 환자의 73.4%가 30~40대였다. 20대(20~29세) 978명(13.5%), 50대(50~59세) 621명(8.7%), 10대(10~19세) 119명(1.7%), 60대(60~69세) 113명(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30~40대 환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배경엔 낮은 항체 양성률이 있을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추정했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0대(19~29세)에선 12.6%, 30대(30~39세)에선 31.8%만 A형간염 항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40대(40~49세) 80.3%, 50대(50~59세) 97.7%, 60대(60~69세) 99.7%, 70세 이상 99.9% 등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96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어릴 때 A형 간염을 앓고 지나가면서 항체가 형성됐지만 위생상태가 개선된 1970~1990년대 출생자들은 어릴 때 감염이 안 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환자 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 "확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 가지 이유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신고환자 수는 경기

### 지난해 동기간 대비 5배 ↑...10만명당 13.83명 73% '30~40대'...'위생개선으로 항체보유율 ↓' 환자수 수도권 많고 발생률 대전·세종·충청순

(2241명), 서울(1302명), 대전(1067명) 순으로 많았는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대전이 7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51.16명), 충북(29.87명), 충남(27.86명) 등 충청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형간염은 A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A virus)감염에 의한 급성간염 질환으로 집단 발생 우려가 큰 제1급 법정감염병이다.

간염 환자 분변에 오염된 손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감염자 혈액 수혈 및 노출, 성접촉 등으로 전파된다. 심한 피로감, 식욕 부진, 메스꺼움, 복통 등 증상은 바

이러스 노출 이후 15~50일, 평균 28일 이후 나타난다.

6세 미만 소아에선 70%가 증상이 없고 10% 정도만 황달이 발생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70% 이상이 황달 발생 이후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A형 간염 예방을 위해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끓인 물 마시기, 음식 익혀 먹기,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고위험군 등은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

질병관리본부는 12~23개월 모든 소아는 물론 A형 간염 변역(A형 간

염 진단, 항체 양성, 백신 접종력 중 1가지이 없는 고위험군 소아청소년 및 20~30대 성 등에게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A형 간염을 앓은 적이 없거나 면역력이 없어도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소아는 생후 12개월 이후 1차 접종)하면 면역을 얻을 수 있다.

2012년 이후 출생자는 보건소 및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9세 이상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하면 된다.

만성 간질환자, 간이식 환자, 혈액제제를 자주 투여 받는 혈액병 환자 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외식업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의료인 및 실험실 종사자, A형 간염 유행지역 여행자 및 근무자 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뉴스



멸종위기 야생동물 '흰목물떼새' 주말인 16일 오전 경남 함안군 소재 한 하천에서 흰목물떼새가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흰목물떼새는 전 세계에 1만마리 정도만 남아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 조선대 이사회, 총장 해임취소 결정 반발...행정소송 진행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이사장 박관석)는 강동완 총장해임과 관련한 교육부 소청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13일 이사회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혁신과 학사행정의 안정 및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20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인이사회는 "강동완 총장의 직위해제(1차·2차) 및 해임은 총장으로서 교무총괄 및 교직원 감독, 학생지도를 해야 할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어 "강 총장은 2018

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준비 미흡으로 조선대학교의 신인도 하락 및 국가재정지원사업 일부 제한 정원감축 등으로 인한 재정여건의 악화를 가져왔다"며 "이로 인해 교수 평의회에서 강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이사회에도 즉각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대학의 주요 결정을 논의해야 할 교무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총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학의 구조개혁 및 경영혁신을 통한 대학혁신지원사업(유형Ⅱ) 신청 및 3주기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불신하는 리더십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대 이사회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강동완 총장이 제기한 직위해제처분(1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직위해제처분 무효, 총장직 해임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이사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사회 관계자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지난 13일 간담회를 개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다수의 의견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20일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방안을 재논의한다"고 말했다.

조선호 기자

## 美캘리포니아 대형마트서 총격 1명 사망

미 캘리포니아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총격범을 비롯해 3명이 부상을 당했다.

16일 AP와 CNN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4일 밤 로스앤젤레스 동쪽 도시 코로나 소재 대형마트에서 발생했다. 사건은 매장 내 말다툼으로부터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제프 에드워즈 코로나경찰 부사장은 총격범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총격범의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부상자 중에는 비번이었던 LA 경찰관도 포함됐다.

목격자들은 육류 코너 인근에서 6~7차례의 총소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상점 고객들은 총소리를 듣고 비상구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건 목격자 로셀 플로레스는 "공포에 질려 생명을 건지기 위해 달렸고, 문을 열려 했지만 비상구라 쓰인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은 전혀 재미있지 않다"며 "모든 사람들이 자제력을 잃었고 서로 뒤엉켜 넘어졌다"고 했다.

LA 경찰당국은 상명을 통해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코로나 경찰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美서 항공기 착륙시 타이어 터져 활주로 이탈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15일(현지시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소속의 항공기 한 대가 착륙하면서 바퀴들이 터져 기체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신화통신이 미 연방항공청(FAA) 발표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덴버를 출발해 이 곳에 도착한 보잉737 기종의 유나이티드 627편 항공기는 왼쪽 메인 기어의 타이어 두개가 파열되면서 활주로 왼쪽을 향해 기울어 진 채 방향이 바뀌어 들쭉날쭉했다고 FAA가 밝혔다.

FAA 발표에는 이 비행기가 현지시간 오후 1시(1700GMT) 뉴욕시 서쪽에 있는 이 공항 활주로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되어 있다.

이 사고로 아직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항공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공항직원이 사고기를 활주로에서 멀리 치우느라 공항 주변 지연사태가 일어났다.

공항측은 트위터를 통해서 아직 공항이 정상화되지 못했고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공항 이용객들은 짐을 모두 가지고 체크인 하라고 통보했다.

뉴어크 리버티 공항은 뉴욕주와 뉴저지주 형민국이 관장하는 중요한 대형 공항들 가운데의 하나이다.

## 파리 노트르담 사원, 안전모쓰고 컷 미사

지난 4월 15일의 대화재로 우아한 지붕과 고딕건축의 최고 걸작품 첨탑들을 모두 잃고 잿더미가 되었던 노트르담 사원에서 15일(현지시간) 화재 후 처음으로 30여명의 소수가 모여 미사를 올렸다.

아직도 불에 그을린 내부 벽과 타버린 나무 잔해가 쌓인 성당 안에서 열린 이번 미사는 정확히 화재 두 달만에 열린 것이다. 하얀 안전 헬멧을 쓴 미셀 오프티 파리 대주교는 전문가가 안전하다고 진단한 성가대석 뒤편의 강단 부근에 서서 미사를 집전했다.

파리의 상징인 고딕 형식의 이 대성당에 대해 프랑스 문화부의 프랑크 리스터 장관은 성당 건물이 아직도 "연약한(fragile) 상태이며 특히 돌근 돌 모양의 천정은 아직도 무너져 내릴 위험이 크다고 이번 주에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안전을 위해서 미사 참석자는 30명으로 제한했으며, 여기에는 주로 신부들 성직자들과 성당 참사위원, 직원들만이 포함되었다. 대주교와 참석자들은 모두 건설현장 노동자가 쓰는 헬멧을 착용했고 성당 재건축 노동자들 일부도 참석이 허용되었다.

파리의 다른 신도들은 가톨릭TV 채널을 통해서 이 미사를 지켜보았다. 동영상에는 아직도 불탄 흔적의 내부 목조구조물이 보였지만 그래도 노트르담의 유명한 마리아와 아기예수상은 나무 비계목들 사이로 무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번 미사는 해마다 치러지는 이 성당의 현당기념 연례 미사였다. 오프티 대주교는 "이 사원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며, 그것이 원래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말하고 이번 미사는 "진정한 행복과 충만한 희망의 예배였다"고 말했다.

성당 소속 피에르 비바르 신부도 미사가 끝난 뒤 성당 밖에서 한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이 사원을 재건할 것이다. 물론 엄청난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들겠지만 결국 재건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다면,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